

2018 SIHH – 메티에 다르 컬렉션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Métiers d'Art *Les Aérostats*.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정복

- 예술 공예와 워치메이킹 기술의 완벽한 조화
- 인그레이빙, 파운딩 장식, 플리카주르 *plique-à-jour* 에나멜 기법
- 매뉴팩처 칼리버 2460 G4/1
- 드래킹 디스크와 점핑 디스크의 독창적 디스플레이



비행.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이어져 온 꿈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신화와 서사시 속에서 등장했던 그 꿈이 대담한 시도 끝에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최초의 '열기구 실험'은 중력을 거스르는 데 성공했다. 그토록 오래 꿈꾸고 상상해 온 하늘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드러낼까? 용기와 천재적 재능, 엄청난 열정은 초기 열기구 조종사, 프랑스어로는 아에로스티어 *aérostats* 들의 하늘을 날고자 하는 열의에 불을 붙였다. 기쁨에 찬 관중들은 열기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장관에 환호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컬렉션은 역사의 한 편을 장식한 흥미진진한 기록에 대한 찬사를 담고 있다. 메종의 숙련된 인그레이빙 장인들은 시계 다이얼에서 또 한 번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하며 1783년에서 1785년 사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5번의 비행을 미니어처로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화려한 핸드 인그레이빙 기법을 통해 아주 작은 사이즈로 조각된 열기구가 플리카주르 *plique-à-jour* 에나멜 기법으로 마감된 투명한 배경 위에 떠 올라 있으며, 매뉴팩처 칼리버 2460 G4/1로 구동되어 시간을 표시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하늘을 나는 모험가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새로운 창조적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다이얼은 섬세한 파운싱 장식 인그레이빙 기법과 더불어 메종에서 최초로 사용한 진귀한 기술인 플리카주르 에나멜 기법으로 장식된다. 두 기법의 조화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추구해 온 전통적인 기술과 탁월한 예술 공예의 결과이다. 새로운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컬렉션은 다이얼 안에서 모든 표시 기능을 통합한 독창적 무브먼트인 바쉐론 콘스탄틴 칼리버 2460 G4/1 을 통해 이러한 예술적 기법과 기술적 전문성의 결합을 가능케 하였다.

파운싱 기법으로 탄생한 골드 열기구

바쉐론 콘스탄틴 아틀리에의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들은 엄청난 도전과 마주해야 했다. 바로 오리지널 평면 도안에 입체감을 더하고 마감 효과를 통해 색상을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3 주에 걸친 장인들의 노력으로 각각의 열기구 장식은 원작에 담긴 미묘한 특징과 장식적 디테일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이렇듯 다이얼은 특별하고 다양한 모티프가 더해진 놀라운 수준의 미니어처 배경으로 구성된다.

파운싱 장식 기법은 양각 효과를 얻기 위한 입체 조각 기법으로, 한 번 작업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완벽한 기술이 요구된다.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최고급 소재를 조각 하기 전에 예리한 도구로 먼저 그림을 새기는 기법인 드라이포인트 기법으로 입체감을 투사하고 섬세한 곡선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단계에서 열기구 풍선과 바구니의 곡선 부분, 로프 라인을 새긴다. 극도로 정밀한 표현을 위해서는 조각칼을 계속 날카롭게 갈아 줘야 한다. 사람 형상과 동물, 열기구 풍선의 정교한 장식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마감 기법을 선보인다. 장인들은 작은 돌, 브러쉬, 종이와 줄 등 자신만의 도구와 기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골드의 질감 위에서 나타나는 빛의 효과로 표면의 아름다운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플리카주르 에나멜 기법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마법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컬렉션의 다이얼은 스카이 블루와 다크 블루, 터퀴이즈, 브라운, 버건디 컬러의 반투명한 배경으로 투명한 하늘을 연상시킨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처음으로 극소수의 에나멜 장인만이 완성할 수 있는 이 기법을 사용했다. 이 장식 기법의 레이아웃은 *클루아조네 cloisonné* 에나멜링 기법을 연상시키고, 베이스가 없는 점은 작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떠올리게 한다. 다양한 색상 사이의 균형감뿐만 아니라 색상의 경계 부분 폴리싱 처리도 매우 섬세하다.

각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컬러는 디스플레이 디스크와 스트랩에도 사용된다. 에나멜이 매치된 내부 베젤 링에는 열기구 로프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프가 인그레이빙되어 있으며, 모델에 따라 3N, 4N 또는 5N 골드 소재가 사용된다.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칼리버의 아름다운 디자인

투명 효과가 있는 *플리카주르* 에나멜 기법을 통해 칼리버 2460 G4/1 의 매혹적인 기어 트레인과 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셀프 와인딩 칼리버는 핸즈가 없는 표시창이 특징이다. *플리카주르* 에나멜 경계선의 곡선 사이에서 다이얼 가장자리에 위치한 표시창을 통해 디스크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시간, 분, 요일, 날짜는 4 개의 디스크(2 개는 드래깅 디스크, 2 개는 점핑 디스크)를 통해 표시된다. 최고급 위치메이킹 피니싱 처리의 기준에 따라 장식된 칼리버는 투명한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컬렉션을 위해 특별히 동형으로 인그레이빙된 골드 로터는 둥근 모양의 열기구를 연상시킨다.

5 번의 비행... 인그레이빙으로 표현한 수많은 이야기

과학, 마법 그리고 꿈: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컬렉션은 비행 분야를 선도한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던 5 번의 역사적인 비행 경험을 재조명한다. 18 세기 후반, 전례 없던 놀라운 사건에 왕실은 물론 대중들도 크게 놀랐다.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 1783 년 베르사유 - 엔티엔 몽골피에 Étienne de Montgolfier 가 제작한 열기구가 최초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 이 '열기구 실험'은 양과 수탉, 오리를 태우고 진행되었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동물들이 생존하면 특정 고도까지 충분한 산소가 있음이 증명되는 실험이었다. 고급스러운 5N 골드 소재의 열기구 풍선 아래에 화이트 골드로 바구니와 로프를 인그레이빙 하였으며, 착륙으로 살짝 손상된 모습까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 1783 년 파리 -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최초의 유인 비행. 엔티엔 몽골피에가 제작한 또 다른 열기구에 탑승한 두 명의 '하늘 여행자'의 모습이 다이얼에 아주 작게 조각되어 있다. 스카이 블루 컬러의 *플리카주르* 에나멜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핑크골드와 화이트골드 소재의 열기구 풍선이 태양과 황도대, 백합 문장 fleurs de lys, 화환, 휘장, 날개를 한껏 펼친 독수리와 함께 인그레이빙되어 있다.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 1784 년 파리 - 열기구 조종사 장 피에르 블랑샤르 Jean-Pierre Blanchard 는 열기구 궤도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상상했다. 그의 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날개의 독창적인 시스템은 다이얼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지정된 장소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하긴 했지만, 이 비행은 시스템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조종사들에게도 더욱 생산적인 시도를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 1784 년 보르도 - 프랑스 전역이 하늘을 향한 특별한 정복에 나서다. 보르도에서 세 명의 여행자를 태우고 이루어진 이 비행은 이 시대에 한 획을 긋는 경이로운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이얼에 똑같은 디테일로 재현된 열기구 풍선은 화려하고 다양한 패브릭과 장식, 신화 속 장면들을 특징으로 한다.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 1785 년 바늘 - 만 명의 관중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이 비행에 경의를 표하다. 우아한 화이트골드 및 옐로골드 바구니가 마치 다양한 블루 컬러의 *플리카주르* 에나멜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기구 풍선의 위쪽 부분은 전기 도금 방식으로 채색되었다. 7 년 후, 열기구 풍선에 사용된 캔버스 천은 공화당 자원 봉사자를 위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메티에 다르 *아에로스티어* 컬렉션은 하늘을 향한 수많은 여정을 재현하며 정복의 정신으로 활기 넘쳤던 시대를 보여준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장인들이 아름답게 재해석한 5 번의 비행은 각각 개별 넘버가 새겨진 5 피스 익스클루시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TECHNICAL DATA

Métiers d'Art *Les Aérostiers*

References	7610U/000G-B210 - Métiers d'Art <i>Les Aérostiers</i> - Paris 1783 7610U/000G-B243 - Métiers d'Art <i>Les Aérostiers</i> - Paris 1784 7610U/000G-B244 - Métiers d'Art <i>Les Aérostiers</i> - Versailles 1783 7610U/000G-B245 - Métiers d'Art <i>Les Aérostiers</i> - Bagnols 1785 7610U/000G-B246 - Métiers d'Art <i>Les Aérostiers</i> - Bordeaux 1784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s
Calibre	2460 G4/1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31 mm (1¼") diameter, 6.05 mm thick Approximately 40 hours of power reserve 4 Hz (28,800 vibrations/hour) 237 components 27 jewels
Indications	Hours, minutes, day of the week and date in apertures on matching disc colour
Case	18K white gold 40 mm diameter, 12.74 mm thick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Water-resistance tested at a pressure of 3 bar (approx.30 meters)
Dial	18K gold hand-engraved balloons Skies in <i>plique-à-jour</i> enamel
Strap	Blue/green/brown/dark blue/burgundy <i>Mississippiensis</i>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Clasp	18K white gold folding clasp Polished half Maltese cross-shaped

Limited series of 5 numbered watches per reference